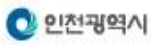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3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미래산업과	담 당 자 • 미래차산업팀장 신영철 ☎440-4206 • 담당자 권호윤 ☎440-4209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미래차 시대’ 준비 나선다.

- 미래차 전환의 첫걸음 위한 부품기업 간담회 개최 -
- 21개 자동차 부품기업과 유관기관 참석, 제시된 의견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차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과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ITP) 자동차 산업센터와 자동차연구원을 비롯해 21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기술전환 지원과 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미래차 전환사업의 이해도 제고 ▲지역 내 협력기업 간 네트워킹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 대응 ▲생산품목별 환경전환 및 인프라 지원 ▲다양한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

ITP 자동차산업센터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시장이 자동차부품의 전후방 산업과 수출을 통해 자율주행·커넥티드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MaaS)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V2X(Vehicle to Everything)형 미래차 실증 기반 구축과 기술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융합연구센터는 인천 미래차 산업 발전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부품기업 간 도전과 상생 협력을 통한 수요 기반의 융합기술 개발과제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코로나19와 세계적인 반도체 섀다운 현상으로 인천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과 경영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GM을 비롯한 인천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과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